

업체 「오염물질 부과금」 안낸다

미납액 91%나...체형제도 마련돼야 다. 1. 12. 12.

환경 오염 물질 배출 규제를 위해 환경처가 시행중인 배출 부과금 제도에 의거, 부과된 배출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환경처가 평민당 박영숙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1백만

원 이상의 배출 부과금을 미납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1백22개 업체로 미납액이 89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배출 부과금 총액 98억4천6백만원의 91%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과금 미납 업체 가운데 미납금이 가장 많은 업체는 유니온물

산으로 17억9천여만원이나 되며 그 다음이 반월군자도금공단(16억2천만원) 인천도금공업(13억5천9백만원) 현대도금조합(8억5천1백만원) 영남도금소조합(3억9천7백만원)의 순으로 도금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미납 업체 가운데는 동해 펄프(3억2천만원) 쌍용산업(2억4천9백만원) 등의 대기업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 전문가들은 배출 부과금을 미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징역 등 체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기업체들의 환경 오염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